

㉞우리나라 소산들도 부끄럽지 않건마는

타국 물화(物化)어울리니 백각전(百各廛) 장할시고

칠패의 생선전에 각색 생선 다 있구나

민어 석어 석수어며 도미 준치 고등어며

낙지 소라 오적어며 조개 새우 전어로다

<중략>

도자전(刀子廛) 마로저재 금은보패 놓였구나

㉟용잠(龍潛) 봉잠(鳳簪) 서복잠(瑞福簪)과 간화잠(間花簪) 창포잠(菖蒲簪)과

앞뒤 비녀 민족절과 개고리 얹힌 쪽비녀며

은가락지 옥가락지 보기 좋은 밀화지환(蜜花指環)

금패 호박 가락지와 값 많은 순금지환

[A][노리개 붙작시면 대삼작과 소삼작과

옥나비 금벌이며 산호가지 밀화불수

옥장도 대모장도 빛 좋은 삼색실로

끈 술 끈 술 갖은 매듭 변화하기 측량없다]

광통교 아래 가게 각색 그림 걸렸구나

보기 좋은 병풍차(屏風次)의 백자도 요지연과

㊱곽분양 행락도며 강남금릉 경직도며

한가한 소상팔경(瀟湘八景) 산수도 기이하다

다락벽 계견사호 장지문 어약용문

해학반도 십상생과 벽장문차 매죽난국

[B][횡축(橫軸)을 붙작시면 구운몽 성진이가

팔선녀 희롱하여 투화성주(投花成珠)하는 모양

주나라 강태공이 궁필십 노옹으로

사립을 숙여 쓰고 곧은 낚시 물에 넣고

때 오기만 기다릴 제 주문항 착한 임금

어진 사람 얻으려고 몸소 와서 보는 거동

㊲한나라 상산사호(商山四皓) 갈건야복 도인모양

㊳네 늙은이 바둑 둘 제 제세안민(濟世安民) 경영이라]

-한양가, 한산거사

1. 열거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O/X>
2. 대상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시적화자의 감탄이 드러나 있다. <O/X>
3.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의 구체적 내용과 용도를 소개하고 있다. <O/X>
4. 자국 문물과 외국 문물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비교하고 있다. <O/X>
5.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외양을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O/X>

1. 다음 중 윗시의 [A], [B]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lt;보 기 &gt;</b>	
<p>         집집이 호인들은 길의 나와 구경하니          의복기 괴려하여 처음 보기 놀납도다       </p> <p>         머리는 압흘 깎가 뒤만 딱혀 느리쳐서          당스실노 당긔*하고 말액이*을 놀너 쓰며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양치 한 번 아니하여          이빨은 황금이오 손톱은 다섯 치라          거문빋 저구리는 깃 업시 지어쓰되          웃고름은 아니 달고 단초 다라 입어 쓰며          아청 바지 반물 속것 허리로 놀너 매고          두 다리의 행전 모양 타오구라 일흠 하여          회목의셔 오금까지 회매하게 드리 씨고*          깃 업슨 청두루막기 단초가 여러히요          좁은 소매 손등 덤허 손이 겨오 드나들고          두루막 위에 배자이며 무릎 우에 슬갑이라          곱방대 옥 물뿌리 담배 너는 쥬머니의          부시까지 써서 들고 뒤짐지기 버릇치라          스람마다 그 모양니 천만 인이 한빛치라       </p> <p>         딱대인* 온다 하고 저의기리 지저귀며          무어시라 인사하나 훈 마디도 모르겠다       </p> <p style="text-align: right;">-홍순학, 연행가</p> <p><small>*당긔: 땡기. *말액이: 마래기라는 모자. *회매하게 드리 씨고: 가뜩하게 둘러치고. *딱대인: 소국 사람. 조선인.</small></p>		

- ① [A]와 <보기>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대상을 관조하는 시적화자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시적화자의 공간이동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보기>와 달리 [B]는 시적화자의 문화적 식견을 바탕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보기>는 대상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2. 다음 중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국 문화에 대한 시적 화자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 : 다양한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 : 시적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가)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시 부벽루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성은 텅 빈 채로 달 한 조각 떠 있고                    城空月一片  
오래된 초전석 위에 천 년의 구름 흐르네.                    石老雲千秋  
[A][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데                    麟馬去不返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노니는가?                    天孫何處遊  
돌다리에 기대어 휘파람 부노라니                    長嘯倚風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山靑江自流

-이색, '부벽루(浮碧樓)

- \* 기린마 : 고구려 동명성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
- \* 천손 : 하늘의 자손으로, 여기서는 동명성왕

(나)

이역에서 봄을 맞으나 봄인 줄 모르다가  
아침결에 눈송이 새로 날리는 것 놀라며 보네  
외물(外物)의 변화에 즐거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지니  
봄날의 기운은 분명히 이 몸에 있기에

-최명길, '춘설유감(春雪有感)'

- \* 이역 : 이 작품에서는 중국의 심양을 의미함. 심양은 우리나라보다 추운 지역임

(다)

온갖 풀이 모두 다 뿌리 있으나                    百草皆有根  
부평초 홀로이 뿌리가 없어                    浮萍獨無蒂  
물 위를 두둥실 떠도는 신세                    汎汎水上行  
언제나 바람에 불려다니네                    常爲風所曳  
살려는 의지가 없으리요만                    生意雖不泯  
붙인 목숨 진실로 작고 가늘어                    寄命良瑣細  
[B][연잎이 너무도 얽신여기고                    蓮葉太凌藉  
마름\*은 줄기로 칭칭 감아 조이네                    荇帶亦交蔽  
한 연못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도                    同生一池中  
왜 이다지 몹시도 어긋나는가]                    何乃苦相戾

- 정약용, '고시(古詩) 7'

- \* 마름 :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름과의 한해살이 풀



(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양응양 울을 것이다

-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나)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1. (가)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나)는 독백의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O/X>
2. (가)와 (나)는 모두 지나온 과거에 대한 시적화자의 아쉬움이 제시되어 있다. <O/X>
3.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O/X>
4.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대조를 통해 시적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5.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O/X>

### 1.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적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 ② 청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화자의 생각을 표현한다.
- ③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직접 나타낸다.
- ④ 대상을 생명력있는 존재로 표현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다.
- ⑤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리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향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김광균, '노신'

\* 노신 : 중국의 작가(1881~1936). 20세기 초, 개혁적 지식인으로 중국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나)

마음 후줄근히 시름에 젖는 날은  
 동물원으로 간다.  
 사람으로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짐승에게라도 하소해야지.  
 난 너를 구경 오진 않았다  
 뺨을 부비며 울고 싶은 마음.

혼자서 숨어 앉아 시(詩)를 써도  
읽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쇠창살 앞을 걸어가며  
정성스레 써서 모은 시집을 읽는다.

철책 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異邦)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1. (가)와 (나)에는 자아 성찰을 통한 반성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O/X>
2. (가)와 달리 (나)는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O/X>
3. (가)는 인간 관계의 회복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치유하고자 한다. <O/X>
4. (나)는 대상이 처한 상황에 착안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O/X>
5.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O/X>

### 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시는 일정한 시상의 흐름을 갖는다. 시상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시상의 흐름은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내용 전개에 따라 시상은 일정한 단위로 단락 지어 나눌 수 있다. 또 처음의 시상이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간에 시상이 전환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소재가 작품의 시상 전체를 집약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두 대상을 매개하여 두 대상을 중첩시킬 수도 있다.

- ① 위 시에서는 ‘시’를 통해 전체 시상이 집약된다.
- ② 위 시는 연을 단위로 하여 시상의 흐름이 나뉜다.
- ③ ‘굳게 살아온 인생’은 시인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로 볼 수 있다.
- ④ ‘등불’은 화자와 노신을 중첩시켜 화자의 다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위 시의 시상은 내용상 시적화자가 ‘노신’을 떠올리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2. 다음 중 (나)의 '공간적 이미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물원'은 화자의 슬픔이 환기되는 공간이다.
- ② '동물원'으로 공간을 옮긴 화자는 자신이 망국민임을 느낀다.
- ③ 시적 화자는 '철책 밖'과 '철책 안'이 전도되었다고 인식한다.
- ④ '동물원'에서 화자는 '철책 안'의 짐승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인식한다.
- ⑤ '동물원' 내에 있는 '철책 안'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극적 인식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앞부분 줄거리] 임진년 봄, 위경천은 동정호 유람을 나섰다가 소속방을 보고 한눈에 반해 인연을 맺는다. 위경천이 집으로 돌아간 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든다. 사연을 알게 된 양가 부모가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한다.

여인(소속방)은 소식을 듣자 약을 쓰지 않고도 홀연 병이 나았다. 이로부터 양쪽 집안이 끊임없이 소식을 주고받았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얻은 기쁨은 장석과 두난항의 만남\*이나 배항과 운영의 만남\*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컸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했으므로, 가깝고 먼 친척들 모두가 예의를 다해 이들을 대했다.

이해 8월, 왜군이 조선에 쳐들어왔다. 조선의 국왕은 수도를 버리고 멀리 신의주까지 피란을 와서 중국으로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황제는 병사를 징집하는 격문을 보내고, 위생의 부친을 왜군을 징벌하는 장군으로 임명하여 3만 병사를 거느리고 멀리 요양으로 가게 했다. 전쟁터는 사지인 데다가 멀리 동쪽 변방에 들어갔다가 언제 돌아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위생의 부친은 그 막하에서 서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그는 즉각 위생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계문으로 가자고 했다.

위생은 부친의 편지를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한 채 마음을 잡지 못했다. 소속방이 문득 슬픔을 억누르고 사리를 따져 가며 위생을 타일렀다.

[A]“듣건대 남자는 세상에 태어나 붉은 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싸움터에 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뜻을 가져야 하며, 철기(鐵騎)를 타고 병부를 꿰어 차고는 마침내 큰 무공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천하의 군센 병사를 모아 변방의 흉악한 무리를 섬멸하고자 하는 지금, 산을 누를 듯한 기세는 있으되 땅이 무너질 듯한 근심은 없으니, 훌륭한 공적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어찌 오활\*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며 끝내 서재를 지키고 앉아 계시려 합니까? 더구나 지금 아버님께서 변경 먼 곳에서 근심을 안고 계시건만, 아들 된 사람으로서 아버님의 괴로움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속히 돌아올 수 있을 테니 아버님의 뜻을 어기지 마세요.

다만 제 팔자가 기구해서 세상사가 자주 어그러지더니, 좋은 인연을 맺자마자 슬픈 이별이 또 찾아오는군요.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이리도 짧은지요? 이제 뜰의 오동나무 잎이 지고 바닷가 기러기가 구슬피 울며 달빛이 섬돌을 비출 때 누가 제 피리 소리를 들어 주겠어요? 새하얀 벽에 벌레만 울고 원앙새의 꿈도 차갑게 식어 저는 다시 애태우며 망부석이 되리니, 오직 낭군께서 하루빨리 돌아오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말을 마치자 술을 마련하여 안채에서 ㉠작별의 자리를 가졌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위생은 부친의 행렬에 합류하나 마음이 극히 허전한 상태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등 온갖 고생을 겪은 데다가, 제대로 먹고 자지도 못해 예전의 병이 다시 도지게 된다.

이러구러 몇 달이 지났다. 위생의 맥이 실날 같아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하자 부하 한 사람이 급히 장군에게 소식을 알렸다. 장군은 전투 계획을 뒤로 미루고 황급히 달려와 위생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천 리 길을 함께 왔지만, 부자간의 도리가 중하니 네 목숨을 꼭 구할 것이다. 너를 데리고 온 건 병약한 아버를 도와 달라는 뜻이었는데, 늙은 아버가 덕이 없어 네가 먼저 병이 들고 말았구나. 하늘 끝에 갈 한 자루 들고 선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전쟁터에 나와 약을 쓸 겨를도 없었으니, 내 참담한 마음이야 너도 잘 알겠지. 고향 땅이 비록 멀지만 돌아갈 길이 험하지 않으니 배를 타고 하룻밤이면 강남에 도착할 수 있을 게다. 마음을 편히 먹고 조금도 근심하지 말거라.”

위생이 부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드는데, 서글픔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마침내 장군의 손을 꼭잡고 목매어

울며 이렇게 고하였다.

[B][“소자의 남은 목숨은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지병이 더욱 심해져 편작이 온다해도 고치지 못하리니, 운명을 어찌겠습니까?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아버지께서 변방에 와 아직 교전 한 번 못 하신 채 자식의 죽음에 고통하며 상심하게 될 일입니다. 어려서는 재주가 없어 부모님께 영예를 끼치지 못했고, 커서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서 평생 곁에서 모실 수 없게 되었으니,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승에서도 이 원통함이 사라지지 않으리니, 어찌 제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황량한 산에 떠도는 외로운 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제 뼈를 고향 선산에 묻어 주십시오.”]

위생은 말을 마치자마자 돌연 숨을 거두었다. 장군이 통곡하며 초상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고 선영(先塋) 곁에 묻도록 명하였다.

상여를 떠나보내는 날, 위생이 장군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소씨 닻 남자와는 정을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살아서는 함께 살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홀연 보이지 않았다. 장군이 놀라서 깨니 꿈이었다. 군막에 달이 지고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작자미상, 위경천전

\*장석과 두난향의 만남: 후한 때 선녀 두난향이 동정호 부근에 살던 장석의 집에 내려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고사.

\*배향과 운영의 만남: 당나라 때 선비 배향이 운교 부인의 소개로 운영이라는 미인을 만났다는 고사.

\*오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1. 사건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O/X>
2. 중심인물의 욕망이 좌절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공명심 때문이다. <O/X>
3. ‘소속방’은 떠나는 위경천의 죽음을 예감하고 다음 생에서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O/X>
4.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5. ‘꿈’을 통해 위경천이 유언에서 언급하지 않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O/X>

### 1. [A]와 [B]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상대방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을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상대방과의 이별상황을 자신의 운명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④ [B]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상대방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처지보다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

2. <보기>가 ㉠에서 읊은 '시'라고 할 때,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p>이슬 촉촉이 내리고 달은 강에 비졌는데                      노 젓다 멈춘 곳에 연꽃 가득 피어 있네.                      연못의 나그네 그 누가 짝할까                      서풍에 실려 오는 노래가 애간장을 끝네.</p> <p>물결에 비친 달빛 연못에 가득한데                      비단 치마에 옥 노리개 차고 배에 기대네.                      간밤의 서풍에 붉은 꽃 떨어져                      아름다운 정원에 향기 가득하네.</p> <p>물 위의 미인이 비단옷 입고                      부용 가득한 곳에서 작은 배를 돌리네.                      밤새 바람 불어 강 가득히 그리운 마음인데                      천 리 밖 변방에선 소식이 없네.</p>	

- ① '연못의 나그네'와 '물 위의 미인'은 위생과 이별하게 될 소속방으로 볼 수 있군.
- ② '서풍에 실려 오는 노래'는 이별의 아픔을 심화시키는 노래라 할 수 있군.
- ③ '서풍'에 떨어진 '붉은 꽃'에서 위생의 죽음을 예감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그리운 마음'은 이별 후에 위생을 그리워할 소속방의 마음으로 볼 수 있군.
- ⑤ '천 리 밖 변방'은 위생이 가게 될 멀리 떨어진 전쟁터로 볼 수 있군.

이 노인은 전 통판 ‘이운경’이니 나이 들어 고향에 돌아와 세월을 보낼새 마침 자기 고을 수령을 보고 돌아오다가 장풍운의 비범함을 보고 기특히 여겨 데려온 것이라.

통판의 전 부인 최 씨 일자일녀를 낳고 일찍 죽었으니, 여아는 경패요 남아는 경운이라. 그 뒤 호 씨를 재취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호 씨 천성이 사나워 경패 남매를 시기하고 구박함이 자심(滋甚)하매 통판이 매양 통한하여 하더니 차일 풍운을 만나 가장 기뻐하며 호 씨더러 알,

“길에서 기특한 아이를 만나 데려왔으니 부인은 사랑하여 기르소서. 이 아이 나이 차면 부귀쌍전(富貴雙全)하리니 경패의 배우자를 삼아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하리라.”

하고 풍운을 불러 빈대 호 씨 변색 알,

“상공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명망이 조정에 진동하거늘 근본 없이 거리로 다니는 아이를 천금여아(千金女兒)의 배필을 삼으려 하시니 남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까 하나이다.”

통판이 소 알,

“이 아이 나중에 반드시 이름이 천하에 진동하리니 아직 떠돌을 어찌 혐의하리오.”

하니 호 씨가 풍운을 자세히 보니 은은한 골격과 열렬한 정신이 훌륭하여 가만히 생각하길, 경패의 배우자를 삼으면 제 자식이 보잘것없어질까 하여 해칠 뜻을 두더라.

이후로 통판이 풍운을 가르치매 문일지십하는 재주 있는지라 공은 애중히 여기나 호 씨는 시기하여, ‘먼저 경패를 없애리라.’ 하고 독약을 죽에 넣어 주니 경패가 받다가 놓치거늘 호 씨 크게 꾸짖고 계교 이루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세월이 흘러 풍운의 나이 십오 세요 경패는 십육 세라. 공이 택일 성혼할새 경패의 작약(縛約)한 자색(姿色)과 장생의 화려한 풍채 짐짓 백년가우(百年佳偶)라.

그러나 호 씨 기뻐하지 않거늘 공이 생각하되,

‘호 씨의 불측함이 여차하니 내 죽은 후면 부부가 해를 만나리로다.’

하며 근심하더니 홀연 공이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회복 못 할 줄 알고 풍운의 손을 잡고 알,

“후취 호 씨 어질지 못하여 경패의 남매를 해하려 하되 내 잇기로 아직 마음먹지 못하더니, 내 세상을 버리면 너희들 반드시 화를 만날 것이니 가장 슬프도다!”

풍운이 대 알,

“인명이 재천하오니 설마 어찌하리잇고?”

공이 슬퍼하며 알,

“자네는 오륙 년 후면 몸이 크게 귀해지리니 나의 자녀를 잊지 아니하면 혼백이라도 즐거우리로다.”

하고 유서를 주어 알,

“호 씨 박대 참혹하거든 이를 보라!”

하고 또 일봉서(一封書)를 소저에게 주어 알,

“나 돌아간 후 서랑(婿郎)을 각별 경대하되 만일 계모의 간계(奸計) 급하거든 이를 보라!”

하고 호 씨와 자녀 등을 불러 앉히고 장탄 알,

“내 불행하여 황천객이 되니 부인은 슬퍼 말고 여러 자녀를 거느려 보충하라.”

하고 인하여 별세하니 소저의 애통함과 풍운의 슬퍼함은 측량치 못할러라. 세월을 당하매 녹림원 선산에 안장하니, 이후로 호 씨의 행악이 무쌍하매 장생이 차마 견디지 못하여 통판 유서를 보니,

‘노부가 노중에서 그대를 만나 칠 년 동거하니 정이 깊도다. 용렬한 여아로 군의 조강을 삼으니 외람함이 많도다. 노부가 세상을 이별하니 한때 빌기 어렵도다. 차후 그대 영귀할 때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하면 황천에 가도 보은

하리로다. 호 씨 강악함이 있거든 소소한 여자를 생각지 말고 경운을 데리고 집을 떠나 소흥 연경사로 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대는 거취를 임의로 하라.’

하였거늘 보기를 마치고 침소에 들어가 장생이 소저더러 알,

“부모를 이별하고 도로(道路)의 걸식하는 잔명(殘命)을 대인이 거두어 보살피사, 사위를 허하시니 은덕을 난망이라. 길이 백 세를 뒤흔까 하였더니 생의 팔자 기구하여 대인이 세상을 버리시고 호 씨 구박이 날로 심하니 더 이상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오, 하물며 대인 유서에 ‘그대를 생각지 말고 경운을 데리고 소흥으로 가라.’ 하시니, 이별이 망극하도다.”

<중략>

장생이 받아 놓고 내당에 들어가 호 씨를 보고 하직 알,

“생이 이제 슬하를 떠나 사해(四海)를 돌아다니며 자취를 세상에 부치고자 하나이다.”

호 씨 혼연 알,

“나의 자녀가 장성하매 두루 구혼하되, 장랑(張郎)의 근본 없음을 빈정거리며 저마다 거절하니 심히 불안한지라. 장랑이 이미 나가려 하니 장연하나 만류치 못하리로다.”

하고 조금도 권연한\* 빛이 없거늘 장생이 침소에 돌아오니 소저가 호 씨의 거동을 묻거늘 장생이 그 사연을 전하고 알,

“우리 양인(兩人)을 생각지 말고 육칠 년만 기다리라.”

소저 유체(流涕) 알,

“금일 상별하니 만나기 묘연하고 첩의 사생을 모르나니 첩은 죽어도 불관하거니와 경운의 일신이 고단하니 군자는 애홀하소서.”

하고 진주투심(眞珠套心)\* 반편을 주어 알,

“만일 첩이 보존하여 다시 만날진대 이것으로 신표를 삼으소서.”

장생이 또한 헌옷 하나를 소저에게 전하여 알,

“이것이 비록 헌옷이나 모친의 수품이니 날 보는 것처럼 하라.”

하며 보중함을 재삼 당부하고 경운이 소저에게 하직할새 서로 누수(淚水)가 만면하여 그 형상이 참담하더라.

-작자미상, 장풍운전

\*권연한: 사모하여 뒤돌아보는. \* 진주투심: 여자들의 새양머리에 꽂는, 진주로 만든 장식물.

1.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X>
2. 섬세한 외양묘사를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O/X>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등장 인물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O/X>
4. ‘이운경’은 만약을 대비하여 동일한 내용의 유서를 ‘경패’와 ‘경운’에게 전달하였다. <O/X>
5. ‘호씨 부인’은 ‘장풍운’을 해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경패’를 먼저 해칠 계획을 세웠다. <O/X>





현은 피우던 담배를 내던지고 저고리 단추를 여였다. 단풍은 이제부터 익기 시작하나 날씨는 어느덧 손이 시리다.

㉠ ‘조선 자연은 왜 이다지 슬퍼 보일까?’

현은 부여에 가서 낙화암이며 백마강의 호젓함을 바라보던 생각이 난다.

현은 평양이 10여 년 만이다. 소설에서 평양 장면을 쓰게 될 때마다 이번에는 좀 새로 가보고 써야, 스케치를 해와야 하고 베풀기만 했지, 한 번도 그래서 와보지는 못하였다. 소설을 위해서 뿐 아니라 친구들도 가끔 놀러 오라는 편지가 있었다. 학창 때 사귄 벗들로, 이곳 부회의원이요 실업가인 김금도 있고, 어느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 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춘도 있건만, 그들의 편지에 한 번도 용기를 내어본 적은 없었다. 이번에 받은 박의 편지는 놀러 오라는 말은 한 마디도 씌여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때, 놀러 오라는 말이 있던 편지보다 오히려 현의 마음을 끌었다.

‘내 시간이 반이 없어진 것은 자네도 짐작할 걸세. 편안하긴허이. 그러나 전임으론 나가 주고 시간으로나 다녀 주기를 바라는 눈칠세. 나머지 시간이라야 그리 오래 지탱돼 나갈 학과 같지는 않네. 그것마저 없어지는 날 그때 아주 그만뒀버리려고 아직은 찌싹찌싹 붙어 있네.’

하는 사연을 읽고는 갑자기 박을 가 만나 주고 싶었다. ㉡ 만나야만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어 전보만 한 장 치고 훌쩍 떠나 내려온 것이다.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여서 터부룩한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러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찌싹찌싹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 않게 여기는, 찌싹찌싹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 현은 박의 그런 찌싹찌싹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더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한참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을 놓고,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갔다. 할 말은 많은 듯하면서도 지껄여보고 싶은 말은 골라낼 수가 없었다. 이내 다시 일어나 현은,

“나 좀 혼자 걸어 보구 싶네.”

하였다. 그래서 박은 저녁에 김을 만나가지고 대동강 가에 있는 동일관이란 요정으로 나오기로 하고 현만이 모란봉으로 온 것이다.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구석에 벽돌 공장도 아닐 테고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순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현은 운전수에게 물어 보니, 경찰서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이상하다 생각한 것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여자들의 머릿수건이었다. 운전수에게 물으니 그는 없어진 이유는 말하지 않고,

“거, 잘 없어졌죠. 인젠 평양두 서울과 별루 지지 않습니다.”

하는 매우 자궁하는 말투였다.

현은 평양 여자들의 머릿수건이 늘 보기 좋았다. 현은 단순하면서도 흰 호접과 같이 살아 보였고, 장미처럼 자연스런 무게로 한 송이 엮힌 땡기는, 그들의 악센트 명량한 사투리와 함께 ‘평양내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런 아름다움을 제 고장에 와서도 구경하지 못하는 것은, 평양은 또 한 가지 의미에서 폐허라는 서글픔을 주는 것이었다.

현은 을밀대로 올라갈까 하다 비행장을 경계함인 듯, 총에 창을 꽂아 둔 병정이 섰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냥 강가로 내려오고 말았다. 마침 놀잇배 하나가 빈 채로 내려오는 것을 불렀다. 주암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니 거기 비행장이 가까워 못올라가게 한다고 한다. 그럼 노를 젓지는 말고 흐르는대로 동일관까지 가기로 하고 배를 탔다.

[중략 부분 줄거리] 동일관에서 '현'은 오래전에 인연을 맺었던 기생 '영월'과 친구들을 만난다. '김'은 동경에 가서 글을 쓴다는 어떤 작가의 '방향 전환'을 칭찬하며 '현'에게도 그러라고 권하지만 '현'은 그 말을 뿌리친다. '현'과 '김'은 부회가 여인들의 머릿수건 착용을 금지한 일에 대해 언쟁을 벌이고 '박'은 '영월'의 노래를 눈물을 글썽이며 이어 부른다. '현'은 '김'이 기생들과 서양 댄스를 추는 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본다.

“아닌 게 아니라 자네들 이제부터 실속 채려야 하네.”

하고 김은 힐끗 현의 눈치를 본다.

“어떻게 채려야 실속인가?”

“팔릴 글을 쓰란 말일세, 자네들 쓰는 걸 인제부터 누가 알아야 읽지 않나? 나두 가끔 자네 이름이니 좀 읽어볼가 해두 요미 니쿠컷(읽기 힘들어서)……도모 이강(도대체가 안돼)…….”

“아니꺼운 자식…… 너희 따윈 안 읽어두 좋다. 그래 방향 전환을…… 뭐……어디 가 글 쓰는 놈이 선견이구 어찌구 하는구나? 똥내 나는 자식…….”

“나니?(뭐야)”

김이 빨근해진다. 김이 빨근해지는 바람에 현도 다시 농담기가 걸히고 눈이 뻥뻥 빛난다.

“더러운 자식! 나닌 무슨 말라빠진…….”

하더니 현은 술을 깨려고 마시던 사이다 컵을 김에게 사이다째 던져버린다. 깨지고 튀고 하는 것은 유리병만이 아니다. 기생들이 그리로 쏠린다. 보이들도 들어온다.

㊸“이 자식? 되나 안 되나 우린 이래 뵈두 예술가다! 예술가이상이다, 이 자식…….”

하고 현의 두리두리해진 눈엔 눈물이 핑 어리고 만다.

“이런 데서 뭘……이 사람 취했네 그려, 나가 바람 좀 쐬세.”

하고 박이 부산한 자리에서 현을 이끌어낸다. 현은 담배를 하나 집으며 복도로 나왔다.

“이 사람아? 김 군 말씀을 고지식하게 탄할 게 뭐가?”

“후…….”

“그까짓 무슨 소용이야…….”

“내가 취했나 보이……자넨 들어가보게…….”

현은 한참 난간에 의지해 섰다가 슬리퍼를 신은 채 강가로 내려섰다. 강에는 배 하나 지나가지 않는다. 바람은 없으나 등골이 오싹해진다. 강가에 흩어진 나뭇잎들은 서릿발이 끼쳐 은종이처럼 번뜩 번뜩인다. 번뜩이는 것을 찾아 하나씩 밟아 본다.

‘이상견빙지履霜堅冰至…….’

「주역(周易)」에 있는 말이 생각났다. 서리를 밟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란 말이다. 현은 술이 확 깨인다. 저고리 를 여미나 찬 기운은 품속에 사무친다. 담배를 피려 하나 성냥이 없다.

㊸‘이상견빙지…… 이상견빙지…….’

밤 강물은 시체와 같이 차고 고요하다.

- 이태준, '패강랭'

\* 패강: 대동강의 별칭임.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두 말리구 갑시다.”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절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탄탄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 가기에 알맞았다. 정 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거주춤 서 있었다. ㉢영달이는 흙벽 틈에 삐죽이 솟은 나무막대나 문짝, 선반 등속의 땀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 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엮고 눈물을 흘려 가며 입김을 불어 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덥에……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네요, 불 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 씨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영달이에게 말했다.

“저런 무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중략>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달이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젠 어떡할 셈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 씨가 말했다.

“시집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의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덥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통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구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루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끈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루 가려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황석영, 삼포가는 길

1. 인물 간 대화를 통해 각자의 과거사가 드러나고 있다. <O/X>
2. 정씨와 백화는 영달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O/X>
3. 영달은 백화의 몸무게가 이전보다 가벼워졌다는 생각에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O/X>
4. 영달은 정씨와 백화의 권유를 뿌리치고 원래 계획했던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O/X>
5. 정씨와 영달은 백화를 먼저 보내기 위해 그녀를 설득할만한 이유를 상의하고 있다. <O/X>

### 1. 다음 중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밖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의식과 행동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 ② 회상의 형식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앞부분 줄거리] 함묘진의 제자인 동연과 서연은 불상 제작 과정에서 각각 형태와 내용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갈등하고, 서연은 진정한 부처의 마음을 찾기 위해 동연을 인정하는 스승 결을 떠난다. 이후 형태를 중시하던 동연은 불상 제작자로 명성을 얻고 함묘진의 딸인 함이정과 결혼하여 아들 조승인을 낳는다. 그러던 중 함묘진은 세상을 떠났는데, 극락에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해 방황한다. 어느 날 함이정은 동연을 떠나 서연을 찾아가던 중 죽은 아버지의 환상을 보게 되고 아버지에게 서연이 있는 곳을 묻는다.

함이정 : 사람들 말로는, 서연 오빠 이 들판에 있다는군요. 여기저기 들길을 떠돌아다니면서 돌부처를 만들어 놓는대요.

함묘진 : 그렇다고 너마저 정처없이 들판을 헤매다니냐?

함이정 : 난 많이 봤어요, 길가에 세워진 돌부처들요. 하지만 서연 오빠 못 만났어요.

함묘진 : 글썄……그동안 뒤만 쫓아다닌 것 아니냐? 돌부처 있는 길에서 못 만났거든, 돌부처 없는 길에서 기다려라. 그래야 만날 수 있지, 이미 지나간 길을 뒤쫓아다녀 봤자 헛수고할 뿐이다.

함이정 : 그렇군요, 아버지! 서연 오빠 만나려면 지나간 길이 아닌, 지나갈 길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함묘진 : 피곤하다, 피곤해……벌써 새벽달이 우는구나!

장담들이 화를 치며 울어 댄다. 함묘진, 그 소리에 쫓기듯이 월채어 바퀴를 굴리면서 나간다. 함이정, 그를 부른다.

함이정 : 잠깐만요, 아버지!

함묘진 : 시간 없다! 해 뜨기 전에 난 지옥문까지 가야 해!

함이정 : 내가 극락문을 열어 드릴게요!

함묘진 : (월채어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내가 어떻게? 맞는 열쇠라도 가졌느냐?

함이정 : 열쇠는 없지만 마음은 있어요!

함묘진 : 마음……?

함이정 : 내 마음이 극락을 느끼면 극락문이 열리고, 지옥을 느끼면 지옥문이 열려요! 난 서연 오빠를 만나면 극락을 느낄 거예요! 그때, 극락문이 활짝 열릴 때, 아버지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함묘진 : 쫓쫓, 너무 장담하진 말아라! 내가 극락을 느낄지 지옥을 느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함묘진, 다급하게 서둘러 퇴장한다. 차츰차츰 먼동이 떠오른다.\* 함이정은 나뭇가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자신이 서 있는 길을 바라본다.

함이정 : 새벽의 여명 때문일까……아니면 내 마음의 느낌 때문일까……넓고 넓은 들판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는데, 오직 한줄기 이 길만이 환하게 밝아 오네. 송인아, 송인아, 내 아들이야, 너에게 이 광경을 보여 주고 싶구나. 여기저기 헤맬 때는 길과 마음이 따로따로 나뉘지더니만, 이제 멈춰 서서 기다리는 이 길은 내 마음과 하나로 이어졌다.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도 나는 느껴.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움직임을 예민하고 섬세하게……사람들이 지나간다. 가축들이 지나가고, 아주 조그만 벌레들도 지나가……다가온다……서연 오빠가 다가온다……서연 오빠가 돌부처를 만들며 다가온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조명, 개



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얼굴 뒤편 구름이……구름 뒤편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 오빠……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둘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 서연 오빠…….

서연 :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조승인 :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먼동이 떠오른다. : 먼동이 트다.



수오재(守吾齋)\*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하였다.

내가 장기(長)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런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 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즉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협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를 지닌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擧)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들어 간 것이 10년이 되었다.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에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墳墓)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흘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淸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했다.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얼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佐郎公)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南海)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서는 항상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

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 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의 기(記)로 삼는다.

-정약용, 수오재기

\*수오재 : 나를 지키는 집.

1. 글쓴이의 직접적인 체험에 대한 감상이 제시되어 있다. <O/X>
2. 글쓴이는 ‘나’를 지키지 않고서는 천하의 만물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O/X>
3. 과거의 삶의 모습에 대한 후회와 회한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다. <O/X>
4.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O/X>
5. 글쓴이는 ‘맹자’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수오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X>

**1. 다음 중 윗글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오재’라는 이름을 지은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이를 해결하고 있다.
- ② ‘귀양’을 기점으로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로 나눌 수 있다.
- ③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할 수 없는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④ 깨달음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 ⑤ 자신과 다른 사물과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

**2. 이 글을 읽고 난 후, 학생의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내 마음이 외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겠어.
- ② 마음을 비움으로써 마음을 채우게 되는 역설의 진리를 깨달았어.
- ③ 사람들 간의 유대의식만이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야.
- ④ 형식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진심이 향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해.
- ⑤ 마음이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만의 심미안을 가질 필요가 있어.

3. 윗글의 필자가 <보기>와 같은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버님께

제가 다산의 아버님 곁을 떠나 소내로 돌아온 지도 어느새 3년이 넘었습니다. 막 돌아왔을 때는 초당에서 몸에 밴 습성대로 글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생각들을 정리해 문집도 만들어 보여 드릴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폐족에서 걸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마음이 근본정신을 가리지 않아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세상과 사물의 진면목을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아버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폐족은 폐족일 뿐, 세상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① 집에 성현의 책이 많이 있으니, 다시 글공부를 시작하여 문집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구나.
- ② 나는 이미 벼슬길을 놓쳤으니,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③ 진정한 공부는 세상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것이니, 학문을 계속했으면 한단다.
- ④ 초당에서 내 곁에 있을 때 공부하던 습관은 결국 너의 것이니 이를 잘 이어가도록 하여라.
- ⑤ 처음 먹었던 마음을 잃지 말고 계속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하기 바란다.

(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스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 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외다.  
-윤동주, 별헤는 밤

(나)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1. (가), (나)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제시하여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O/X>
2. (가)의 시적화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나)의 시적화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O/X>
3. (가)의 '봄'과 (나)의 '사월'은 모두 시적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대상이다. <O/X>
4. (가)의 '벌레'와 (나)의 '껍데기'를 통해 시적화자의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5. (가)에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이, (나)에는 시적화자가 바라는 미래상황에 대한 의지가 제시되어 있다. <O/X>

### 1. 다음 중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진술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대조의 방법으로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시구의 반복으로 시적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상전개 과정에서 시적화자의 태도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 (가)작품을 읽고 <보기1>의 자료를 접했을 때 <보기2>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1>

이 시는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갖가지 상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전 10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과거의 추억, 현재의 고뇌, 미래의 희망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다. 즉, 별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작가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전반부와, 산문적인 리듬으로 어머니와 유년기의 친구, 고향의 산천을 동경하는 중반부,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보 기2>

이 작품에서 분석할 수 있는 '별'의 의미는 무엇일까?

- ① 과거를 추억하는 회상의 매개체로 볼 수 있겠군.
- ② 시적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자의식을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도구로 볼 수 있겠군.
- ④ 시적화자가 상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사랑처럼 풀이 무성할' 날을 기다리는 시적화자의 의지로 볼 수 있겠군.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인은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나 시구를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시상이 전개되면서 다른 시어나 시구에 옮겨져 시적 긴장감이 이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또한 시상이 마무리되면서 긴장감이 해소되기도 하고 긴장감이 강화된 상태에서 마무리되기도 한다.

- ① '껍데기'가 반복제시 됨으로써 다른 시어들과 의미상 대립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군.
- ② '알맹이'는 '껍데기'가 지닌 시적 의미와 대립하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③ '아우성'은 '알맹이'와 조율을 이루지만 '껍데기'와 대립하면서 시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군.
- ④ '중립의 초례청'은 '껍데기'와 대조적 의미를 가지고 어울리면서 시적 긴장감을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키는군.
- ⑤ '껍데기는 가라'에서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로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강화된 상태에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군.



(가)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

-김광규, 안개의 나라

(나)

대숲으로 간다  
 대숲으로 간다  
 한사코 성근 대숲으로 간다

자욱한 밤안개에 버레소리\* 짙어 흐르고  
 버레소리에 푸른 달빛이 배어 흐르고

대숲은 좋드라  
 성글어 좋드라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드라

꽃가루 날리듯 흥근히 드는 달빛에  
 기척 없이 서서 나도 대같이 살거나

- 신석정, 대숲에 서서

\*버레소리: 벌레소리.



화설. 소운명이 뛰어난 재주를 지닌 젊은이로 몸이 높은 자리에 올라 옥당을 밟으니 명성과 덕망이 조정에 진동하였고 문장은 이태백과 두보를 압두하였다. 그러자 사람마다 탄복하여 그 재취 자리를 바라며 구혼하는 매파가 문을 시끄럽게 하였으나 승상 소현성이 허락하지 않자 소운명이 마음속의 회포가 울적하고 답답해 늘 탄식하였고 부친의 명이 기구한 것을 한탄하였다.

이해 초겨울에 소운명이 산서 지방의 순안어사로 나갈 때 소 승상이 타이르며 말하였다.

[A]“너의 소임이 무거운 데 비해 나이는 젊으니 마땅히 밤낮으로 근심하여 늘 청렴하고 급한 성미를 보이지 마라. 옥사(獄事)를 처리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고 청탁을 듣지 말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풍악과 술과 안주를 베풀지 마라. 만일 가르침을 거역하여 창기를 모으고 잡된 무리를 사귀어 어지럽게 예를 잃어버려 집안의 명성을 더럽게 한다면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마라.”]

소 부인이 이어서 말하였다.

[B]“무릇 사람을 대함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난잡하지 않으면서 자애롭고 인자하며 후덕한 것이 군자가 할 일이니 너무 매몰차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소운명이 머리를 숙이고 사례하며 말하였다.

“오늘 아버지와 숙모께서 주신 밝은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하직할 때에 온 집안사람들이 모두 섭섭해 하였고, 화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였다. 소운명이 대궐 아래에 가서 조서를 받고 나서는 절월\*을 지니고 산서 지방으로 향할 때 십 리까지 잔치를 베풀어 이별하였다.

소운명이 길을 떠나 산서 지방에 이르렀다. 부임을 한 뒤 덕과 위엄을 두루 갖추어 공무를 보자 몇 개월 사이에 교화가 크게 베풀어졌다. 사람들이 일찍이 소운현이 총마어사를 할 때의 덕을 흠모하던니 소운명의 행동이 소운현에게 뒤지지 않는 것을 보고 별명을 짓기를 ‘맑고 현명한 두 명의 소씨 선비’라고 하였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 다음 해 2월에 소운명이 노복과 말을 갖추어 두루 순행하였다. 안무현에 이르러 산수가 뛰어난 것을 보고는 일을 처리한 후에 거느린 종과 행장을 모두 물리치고 유람을 하고자 하였다.

각설. 산서 안무현 출신의 재상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원기였다. 이원기는 사람이 맑고 깨끗하고 성품이 강직하고 곧았으며 뛰어난 재주로 인해 명성이 자자하였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상서에 오르자 그 명망이 세상에 요란하였는데,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침노하여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마쳤다. 곧이어 부인 여 씨가 죽었다. 슬하에 오직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옥주이며 나이가 11세였다. 다른 친척이 없고 오로지 부모를 의지하였다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만나니 혈혈단신으로 약간의 노비와 함께 겨우 부모의 장사를 지냈고 집안의 재산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밤낮으로 슬퍼하며 푸른 하늘을 우러러 부모의 신령을 부를 따름이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도적이 들어와 소란을 피워 집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소굴로 삼자 이옥주가 겨우 몸을 벗어났다. 시비 춘앵과 함께 홀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죽고자 하였는데 춘앵이 겨우 붙들어 구하여 말하였다.

[C]“이제 길 위에서 죽어 주인님과 부인의 신령을 의탁할 곳이 없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옛날 제영은 아버지의 죄를 신원하고 목란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국경을 지켰으니 사람이 낱아서 길러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몸의 괴로움을 벗어 버리려고 긴 목숨을 끊어 제사를 버리는 것은 지극한 불효입니다. 소저는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 소저가 슬픔을 진정하고 역지로 남북을 입고 춘앵과 서로 붙들고는 갈 곳이 없음을 통곡하며 말하였다.

[D]“어려서부터 대대로 높은 벼슬을 누려 온 가문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집에서 비단옷도 무겁게 느껴지고 맛있는 음식 또한 입에 맞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곤란한 액운을 만나 죽지도 않고 도로에서 걸식하게 되니 이는 위로는 집안의 명성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나에게 더러운 소문이 있을 것이니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춘앵이 백방으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산 밑에 도착하였는데 봄바람이 냉담하고 꽃들은 생기가 있으니 두 사람이 참혹하고 비통하여 한바탕 크게 울고 모란 떨기 속에 엎드려 쉬고 있었다.

이때 마침 소운명이 유람을 하고 있었다. 소운명이 결의 노비를 다 물리치고 동자 한 명만 거문고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였다. 대나무 지팡이를 꺾어 짚고 신발을 끌고 유생의 옷차림으로 산수를 둘러보았다. 문인의 흥치가 높으니 몸이 가볍고 걸음걸이가 나는 것 같았는데 한 곳에 이르자 그윽한 산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하여 시냇물에 비치고 온갖 꽃이 만발하고 동풍이 화창하게 불어오는 것이 비단 장막을 두루 친 듯하였다.

소운명이 키가 작고 옆으로 편진 소나무 아래에 있는 바위에 올라 앉아 거문고를 가지고 곡조 하나를 타자 맑은 흥과 운치가 일어났다. 입으로는 송옥의 백주시를 부르며 깊이 들어가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오십 걸음을 지나자 꽃과 나무들 사이에 소년 한 명이 흰 두건을 쓰고 베로 지은 옷을 입고 비스듬히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흐린 구름 속의 밝은 달과 같고 진흙 가운데에 좋은 옥이 묻혀 있는 것 같아 광채가 영롱하였다. 소운명이 한번 바라보자 마음이 급해져 바빠 나아가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청명 절기에 유람을 하는 것은 문인의 의지와 기개입니다만 수풀 사이로 선인이 더러운 속세에 수고롭게 왕림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 사람이 놀라서 눈을 들어 보니 다만 재주가 뛰어나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 이가 있었다. 붉은 입술과 흰 이로 학의 울음과 같은 목소리를 내어 물어보는 것을 보고 빨리 일어나 답례를 하고 대답하며 말하였다.

“소생은 본토 사람으로 일찍 부모를 이별하고 몸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 낙엽같이 떠돌아다니니 어찌 노닐며 즐길 사이가 있겠습니까? 존사는 어떤 사람이시기에 외로이 혼자서 무엇을 보십니까?”

[뒷부분 줄거리] 소운명은 소년이 남장을 한 이 소저임을 알게 되고, 이 소저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다. 소운명은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소저와의 혼인에 성공한다.

-작자미상, 소헌성록

\*절월: 지방에 부임하는 신하에게 임금이 내어주던 물건.

1.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환상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O/X>
2.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비범한 인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X>
3.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O/X>
4. 특정 인물에 대한 소개를 기준으로 사건이 나누어지고 있다. <O/X>
5.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심리변화가 제시되고 있다. <O/X>

### 1. [A]~[D]에 나타나는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B]는 떠나는 아들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 [B], [C]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 ③ [A], [C]에는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 ④ [C], [D]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생각의 차이가 드러나 있다.
- ⑤ [B], [C], [D]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제시되어 있다.

2. 다음 중 윗글의 인물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운명'은 재주가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고 있군.
- ② '춘앵'은 노비로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군.
- ③ '이옥주'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인물이군.
- ④ '소현성'은 '소운명'이 절제되고 청렴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인물이군.
- ⑤ '소운명'과 '이옥주'는 각각 상대방의 재주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군.

철 화로, 사발시계. 이것이 내가 갓 세간 나서 내 손으로 처음 장만한 세간이었다. 장롱 위의 똑똑똑 시계 소리를 들어 가며 우리 젊은 내외는 철 화롯가에서 밥을 먹었다. 새벽녘이면 따르릉 시계 소리에 아내는 부엌으로 나갔고 나는 비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저녁때면 철 화로에서는 된장찌개가 끓었다. 혹은 아내의 김을 굽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흰 맥기\*를 한 사발시계는 간소한 우리 방 안에서 제법 빛났고, 철 화로는 아내의 기름걸레에 반들반들 길이 들었다. 이 시계는 근 수십 년 사용되었고, 그동안 내 생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린것들이 하나둘 늘었고 구즈레한 세간들도 지저분하게 늘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지기 시작했다. 철 화로는 부엌세간으로 강등을 하여 존재조차 잃어버렸고, 시계만이 문갑 위에서 긴긴 밤을 나와 같이했다. 나는 아내 얼굴보다도 시계 소리와 더 교분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충실하던 시계가 고장이 잦더니 이내 안 가고 말았다. 그의 수명은 끝난 것이다. 가지 않는 시계는 소용없는 파쇠\*다. 광 속에서 굴러야 했고 또 내 기억에서 떠나야 했다.

어느 날 어린놈이 한 시계를 주고 엿을 사 먹는다고 내담기에 보니 광 속에서 이 시계가 굴러 나온 것이 아닌가. 잊어버렸던 이 시계가. 세 가락의 엿과 바꾼다기에 돈을 대신 주고 시계를 받아 먼지를 털고서 문갑 위에 놓아봤다. 과거의 가지가지 회상이 떠올랐다. 결단난 시계 꼴을 바라보며 점점 나도 이것을 닮아 가지 하고 생각했다.

수십 년 근속하던 충실한 시계다. 비록 노구일망정, 아니 시체일망정, 엿 세 가락에 쳐주기에 너무 팔시오, 푸대접이다. 나는 뒤뜰로 들고 가서 땅을 파고 깊이 묻어 버렸다. 고담에 나오는 충견 묘(忠犬墓)처럼 시계 묘를 만들 작정은 아니지만, 처리할 수 없는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고 마땅하다 생각했다.

사람의 생각이란 기묘하지 아니한가. 생김소리 까마득한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데서 얼토당토 아니한 생각을 끌어오기도 하고…….

지금 나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구부리고 무 구덩이를 파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내다보며 십여 년전, 잊어버렸던 조그마한 일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렇다. 시계를 파묻던 것도 생각하니 옛날 일이요, 지나간 낭만이다.

“여보, 다 봤소?”

“이제 다 됐어요.”

대견한 듯한 대답이다.

“전에 내가 시골서 시계를 묻은 적이 있었지?”

“뭐요?”

무슨 소린지 모르는 모양이다. 그럴 노릇이다. 알 턱이 없다. 나 혼자 웃었다. 아내는 돌아서서 손을 씻는다. 머리털이 바람에 날려 희끗희끗하다.

“당신 많이 늙었구려.”

힐끗 쳐다본다.

“그럼 늙지 았구.”

“아니, 당신 뒷모습이 아직도 새댁 같아서…….”

“싱겁긴!”

이것으로 우리 부부의 대화는 끝났다. 오십이 넘은 그는 이런 말이 이제는 싱거웠고, 사발시계를 난데없이 생각해 낸 나는 이런 싱거운 말이 나왔다. 무 구덩이를 파는 아내의 뒷모습과 십여 년 전 시계를 묻던 일과 무슨 연관이 있으랴. 오늘따라 맑고 갠 하늘에 따스한 별이 고요한 뜰에 깃드니 옛 그림자가 스스로 거울 위에 떠오른 것이다. 시계를 묻던 그 시절의 낭만이 애상적이라면, 무 구덩이를 파는 자태는 자못 현실적인가. 그러나 현실적인 그 생활의 투쟁에도, 바람에 약간 날리는 모발은 또한 애상적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때때로 잊었던 옛 추억 속에 늙어 가는 것인가. ㉠과거와 미래는 한 평면경 위에서 광선에 따라 변쩍이고 사라지는 하나의 점일지도 모른다. 시

간이란 벌써 공간에 대립되는 의미는 아니다. 시계는 문였어도 생각에 남아 있고, 시간은 가도 시계는 문히어 있고……. 화로에 기름걸레질을 하며 김을 굽던 아내는 지금도 구부리고 무 구덩이를 파고 있다. 나도 젊음과 늙음이 한데 겹쳐 창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십 년이니 삼십 년이니 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의 모든 사실은 같은 한 시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윤오영, 사발시계

- \*맥기: '도금(금속이나 비금속의 겉에 금이나 은 따위의 금속을 얇게 입히는 일)'의 잘못.
- \*파쇠: 현쇠. 녹이 슬거나 깨어져 못 쓰게 된 쇠붙이.

1. 생활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O/X>
2. 대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현장감을 더하고 있다. <O/X>
3.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O/X>
4. 체험을 바탕으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X>
5.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O/X>

1. 윗글을 읽고 <보기>와 같이 사건을 정리했을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b>&lt;보</b>	<b>기&gt;</b>
<p>㉠ 무 구덩이를 파는 아내의 자태</p> <p>㉡ 시계를 문던 기억</p> <p>㉢ 바람에 날리는 아내의 모발</p>		

- ① ㉡를 통해서 ㉠를 떠올리고 있다.
- ② ㉠, ㉢는 현재상황을, ㉡는 과거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를 통해 '사발시계'가 '아내'에게 갖는 의미가 제시되고 있다.
- ④ ㉠와 ㉢를 보는 '나'는 '아내'에 대한 애뜻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아내'와 '나'는 ㉡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2. 다음 중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다.
- ② 시간의 흐름은 무상한 것이다.
- ③ 과거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 ④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는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위에 존재한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거기다가 대숲에서는 제법 바람 소리까지 일었다.

하기야 대숲에서 바람 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굳이 날씨 때문이랄 수는 없었다. 청명하고 별발이 고른 날에도 대숲에서는 늘 그렇게 소소(蕭蕭)한 바람이 술렁이었다.

그것은 사르락 사르락 댓잎을 갈며 들릴 듯 말 듯 사운거리다가도, 쇠아 한쪽으로 몰리면서 물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잔잔해졌는가 하면 푸른 잎의 날을 세워 우우우 누구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래서 울타리 삼아 뒤편에 우거져 있는 대밭이나, 고샅에 저절로 커 오르는 시누대, 그리고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왕댓잎의 대바람 소리는 그저 언제나 물결처럼 이 대실(竹谷)을 적시고 있었다.

근년에는 이상하게, 대가 시름거리며 마르기도 하고, 예전처럼 죽순도 많이 나지 않아, 노인들 말로는 대숲이 허성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늘을 가리며 무성한 대나무들은 쉬흔 자의 키로 기상을 굽히지 않은 채 저희 들끼리 바람을 일구는 것이었다.

전에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는 속이 비어서 제 속에 바람을 지니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대숲에는 바람이 차기 마련이라고 말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날씨마저 구름이 잡혀 있는 데다가 잔바람이라도 이는 날에는 으레 물결 쏠리는 소리를 썩아 내면서, 후두둑 비 쏟아지는 시늉을 대숲이 먼저 하는 것이었다.

대실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대숲에서 일고 있는 바람에 귀가 젖어 그 소리만으로도 날씨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몸짓까지라도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기도 하였다.

그저 저희끼리 손을 비비며 놓고 있는 자잘하고 맑은 소리, 강 건너 강골 이씨네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쪽 대실로 마실 나온 바람이 잠시 머무는 소리, 어디 먼 타지에서 불어와 그대로 지나가는 낯선 소리, 그러다가도 허리가 휘어질 만큼 성이 나서 잎사귀 낱알의 푸른 날을 번뜩이며 몸을 솟구치는 소리, 그런가 하면 아무 뜻없이 심심하여 제 이파리나 흔들어 보는 소리, 그리고 달도 없는 깊은 밤 제 몸속의 적막을 통소 삼아 불어 내는 한숨 소리, 그 소리에 섞여 별의 무리가 우수수 대밭에 떨어지는 소리까지라도 얼마든지 들어 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그 대바람 소리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마을에 큰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 <중략>

“거배애상호서상부하야(擧盞相互.上婦下).”

서로 잔을 들어 신랑이 위로, 신부가 아래로 가게 바꾸시오.

허근의 소리가 다시 울린다. 이 순서야말로 조심스러운 것이고, 이제까지의 복잡하고 기나긴 예식의 마지막 절차이다. 또한, 가장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일이기도 하였다. 사람들도 이때만은 숨을 죽인다.

하님과 대반은 술상 위에 놓여 있는 표주박 잔을 챙긴다.

세 번째 술잔은 표주박인 것이다. 원래 한 통이었던 것을 둘로 나눈, 작고 앙징스러운 표주박의 손잡이에는 명주 실 타래가 묶여 길게 드리워져 있다. 신랑 쪽에는 푸른 실, 신부 쪽에는 붉은 실이다. 그것은 가다가, 서로 그 끝을 정교하게 풀로 이어 붙여서 마치 한 타래 같았다.

이제 이렇게 각기 다른 꼬타리의 실끝이 서로 만나 이어져 하나로 되었듯이, 두 사람도 한 몸을 이루었으니, 부디부디 한평생 변치 말고 살라는 뜻이리라.

그러나 어려운 것은, 그 표주박에 가득 술을 부어 술잔을 서로 바꾸어 마셔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술잔을 바꾸면서 술을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 또 실이 얽히거나 꼬여서는 더욱 안 된다. 술방울을 흘리면 흘린 쪽의 마음이 새어 버리고, 실이 얽히면 앞날에 맺힌 일이 많아, 그만큼 고초가 심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반은,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온몸을 조심하며 술잔을 서로 바꾸는 것이다.

양쪽 상 위에 서리를 틀고 있는 청실 홍실은 구름 끼인 별뿔 아래 요요히 빛나고 있다.

하님과 대반은 각기 신랑과 신부에게 표주박을 쥐어 준다.

“시이자아가악치임주우(侍者各斟酒).”

허근의 목소리는 고비에 이르렀다.

드디어 하님과 대반이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긴장을 하고 조심하면, 일은 더욱 더디어지고 걸리기 마련인가. 아니면, 워낙 명주실이라는 것이 부드럽고 가늘어, 이리저리 옮기지 않아도 제 타래에서 제 실날끼리라도 얽히는 것일까.

그만 실이 꼬이더니 얽히고 만 것이다.

춌!

허담이 혀를 찼다.

하이고오, 어찌꼬오…….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소요가 일었다. 그 수련거림은 불길한 음향을 남겼다. 물론 그것은 작은 매듭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더 어쩔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가느다란 실날을 헤쳐 가며 풀 수도 없으려니와, 그러다가는 표주박의 술마저 엇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왕에 얽혀 버린 실을 풀어 내다가는 다음 일조차도 그르치게 된다. 허근의 얼굴이 어둡게 찌푸려진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그냥 두라고 했다.

그래서 아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어깨를 움츠리며 잔을 나르는 대반의 코에 땀이 솟아난다.

아하아아.

하객 중의 한 사람이 탄성을 발했다. 술방울을 흘리지 않고 무사히 잔이 건네어진 모양이었다. 사람들도 저마다 비로소 숨을 틔운다.

— 최명희, 혼불

1.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O/X>
2. ‘날씨’에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O/X>
3. 구체적인 공간을 묘사함으로써 인물 간 갈등의 계기를 드러내고 있다. <O/X>
4. ‘명주실 타래’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O/X>
5. 결혼식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O/X>

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화는 삶의 총체적 양식이다. 이는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여 삶의 여러 문제에 대응하면서 얻은 삶의 지혜를 축적한 결정체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로 나누어 소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더 수월하게 이어 갈 수 있다. 특히 사회생활 속에서 빚어진 갈등을 이야기로 엮고 푸는 문화적 수행을 통해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축적해 왔다. 이처럼 이야기는 인간의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원동력인데, 소설에서 문화의 장을 재현하려는 모색은 이와 연관된다.

- ① 혼인 의례 중 ‘마지막 절차’를 묘사하여, 소설에서 문화의 장을 재현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하님과 대반’의 실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당시에 공유되는 문화양식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대숲’의 소리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능력을 통해 공동의 생활 공간에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문화적 지혜를 모으는 양상을 가늠할 수 있겠군.
- ④ ‘가장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일’의 의미를 통해 사회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주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시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군.
- ⑤ ‘큰일’로 인해 마을의 대바람소리에 신경쓰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삶의 중요한 일에 구성원 서로가 관심을 가지며 그 의미를 공유하려는 문화적 모색을 엿볼 수 있겠군.